



박영호

성천아카데미 다석사상강좌 교수

동방의 성인 多夕 류영모의 삶②

4. 농사짓고 살기로 하다.

류영모는 오산학교 교단을 물러나서 바로 일본 도쿄(東京)에 공부하러 갔다. 일본에서 공부하려는 것은 최고학부인 대학을 다니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때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일본대학에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입시준비를 하는 전문학교가 있었다. 문과는 正則학교에 다니고 理科는 물리학교를 다니었다.

류영모는 오산학교에서 과학교사를 하였다. 류영모는 이과대학에 진학하고자 동경 물리학교에 들어갔다. 2년을 공부하고 대학입시를 보아야 하는데 포기하고 돌아왔다. 입시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농사짓고 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농사하며 살겠다고 이야기 하였더니 아버지의 실망이 컸다. “그 체력으로 監農이나 하면 했지 무슨 힘으로 네가 농사를 하겠느냐”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류영모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면서 실천하지는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아버지가 직영하는 製革재료상 점포와 솜공장의 일을 도왔다.

아버지가 별세하자 3년상을 치룬 뒤 자신의 소신대로 유산을 팔아 북한산 비봉 아래 과수원을 사서 농사를 시작하였다. 지금은 그곳도 서울시 종로구가 되었지만 그때는 오늘의 강원도 산골과 다름이 없었다. 류영모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던 민족사학자 湖岩 文一平은 丰谷이라고 표현하였다. 사방이 산줄기로 막힌 골짜기라는 뜻이다.

농촌으로 归去來를 23살에 결심하여 23년을 기다려 46살에 실천하였다. 대단한 인내심이요, 놀라운 집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류영모의 생활태도다. 류영모는 예수와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사람은 이미에 땀흘리며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에서 농사는 天下之大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땀흘려 일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성현의 말씀에도 땀 흘리며 일하여 거기서 얻은 것으로 부모를 봉양하면 大孝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가만히 보면 말끔히 땀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 실정은 어떻게든지 땀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한자리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좋은 학교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백성은 하느님을 믿는 자나 안믿는 자나 십계명보다도 앞서 이미에 땀흘려야 한다는 하느님의 이르심을 죄다가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道心이고 道義고 이 나라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일하여 자꾸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면 보기에는 더러운 것 같아 보이나 속은 시원합니다. 이미에 땀흘리기를 싫어하고 기피하면 도심이고 도의고 아주 미미하게 됩니다.”

5. 고당(古堂) 이어 오산학교장에

남강 이승훈은 나라를 건지겠다는 애국심으로 定州에 오산학교를 세웠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애국심으로 학교를 경영하였다. 이승훈이 1930년에 세상을 떠나자 고당 曺晚植이 朴善培에 이르기를 “남강은 大韓을 위하여 나고 대한을 위하여 울고 웃었고 대한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오산학교는 이 겨레의 민족정신의 불씨를 간직하는 제단이요 성소였다. 그리하여 曰帝는 1919년 3·1 운동 때 이 나라에서 유독 오산학교 만은 일본헌병들이 일부러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고당 조만식 교장의 인준을 취소하였다. 오산학교는 曰帝의 눈에 가시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산학교 교사와 졸업생과 유자들이 합심협력하여 잿더미 속에서 다시 가교사가 불사조처럼 세워졌다. 그리하여 오산학교는 부활하였으나 학교장이 없었다. 다시 교사와 졸업생 유자들이 속의한 끝에 류영모를 교장으로 모셔오게 되었다. 만 31살의 류영모가 1921년 9월부터

오산학교장에 취임하였다.

류영모는 1910년 교사로 오산학교에 왔을 때도 奇行으로 오산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엄동에도 냉수마찰을 하고, 식사는 과식하는 일이 없고, 시간약속은 어기는 일이 없고, 요한복음 설교의 감동은 10년이 지나도록 전해오고 있었다.

교장 류영모는 더 나아가 교장실 회전의자를 치우고서 보통의자의 등받이를 잘라버린 그 위에 널판지를 깔고 끓어앉아서 집무하였다. 修身을 가르치는데 일본교과서는 건드리지도 않고 자신이 고른 세계적인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가르쳤다. 학교장이 자기가 자는 방에 땀 장작을 쪼개고 손수 굼불을 때었다. 학생들의 생년월일을 물어서 이제까지 살은 날수를 셈하여 주었다.

曰帝는 3·1운동 48인의 한 사람인 柳明根의 아들 류영모도 오산학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교장인준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오산학교 교장 1년만에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름 밤에 오산학교서 고읍역까지 짐을 나르는 학교사환과 걸어 가는데 뜻밖에 咸錫憲이 어떻게 알고 따라왔다. 함석현은 오산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다. 류영모는 함석현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여주는 끝에 “이번에 오산에 온 것은 항군을 만나러 왔나봐”라고 하였다. 함석현은 그 말을 일생 잊지 않고 있었다.

함석현은 그 때 류영모를 스승으로 만나서 생애에 단종을 이루리만큼 비약적인 정신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함석현은 언제나 류영모를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다. “류선생님”이라고 하면 류달영을 말하였다.

6. 기독청년회 연경반 강좌를 맡다.

서울 중앙기독청년회(YMCA)의 기동이라 할 월남 李商在가 1927년 별세하였다. 이상재가 없으니 이 나라가 텅빈 것 같은데 더구나 몸담고 있었던 YMCA야 말할 것이 없었다. YMCA에서는 이상재가 없는 빈 자리를 메울 인물을 찾았다. 거기에 류영모가 점찍혀졌다. 류영모의 나이는 아직 40살의 不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류영모는 이미 알려질만큼 알려진 정신인이었다. 일찍 기미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지은 육당 崔南善이 류영모를 경외하여마지 않았던 것이다.

최남선은 그때 이 나라 굴지의 학자였다. YMCA간사이인 현동완은 YMCA초대 총무였던 삼성 金貞植의 추천을 받아 류영모를 YMCA연경반 강사로 초빙하였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기독청년회관(YMCA)에서 얘기를 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정신이 이 내 정신을 보고 꼭 가라고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학교공부를 하여야 하고 무슨 지위를 바라는 것은 한낱 꿈이 아니겠습니까.”

류영모는 YMCA 총무 현동완 및 몇 회원과 함께 曰帝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이 패전의 위기에 몰려 발악을 하던 때도 몰래 모임을 계속하였다. 그 모임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임이었다. 모임이라기 보다는 그대로 독립운동이요 독립전쟁이었다.

YMCA연경반 모임을 거쳐간 사람은 30여년 동안 수 천명은 될 것이다. 도무지 주소록조차 만든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다. YMCA모임에서 함석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류영모의 사상을 들을 수 있었다. 필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함석현은 이 모임에서 류영모의 강의를 듣고 일본의 우치무라간조(内村鑑三)의 무교회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함석현은 “일주일동안에 선생님만큼 정신적인 생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였다. 金興浩, 廉客駿, 柳承國 등은 YMCA강좌만 가지고는 모자라 자하문밖 류영모의 집으로까지 찾았다.

YMCA총무 현동완은 류영모를 지극히 존경하였다. 류영모가 회갑잔치를 하지 않자 YMCA에서 2만2천일 기념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현동완은 늘 하는 말이 이 나라에서도 성인이 한사람이라도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현동완은 류영모의 성인다운 모습에 매료되어 성심껏 받들었다. 현동완의 바람과 성심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류영모는 30여년 동안 YMCA강좌를 하면서 언제나 구기리 집에서 종로까지 걸어다녔으며 시간을 어김없이 없었다. *

朴永浩 — 다석사상연구위원, 다석선생에게 직접 師事, 著書 “씨일의 말씀”, “다석 류영모의 생각과 믿음”, “다석 류영모의 기독교사상” 등